

뮤지엄 가이드 I

# The Scent of Art

## 예술의 향

김환기의 예술세계

환기미술관은 김환기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며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세대-계층-장애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인식개선의 계기, 관람객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형 배리어프리 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진행합니다. 소리와 향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과 매체, 언어로 안내할 이번 전시는 김환기 예술세계에 입장한 모든 이들과 동행하여 소외되거나 길을 잃은 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술의 향》은 수화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매개로 ‘生生’에 대한 애정과 성찰을 담은 전시이다. 전시는 작품을 모티프로 한 3개의 주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영원한 것들’, ‘무위자연 無爲自然’으로 구성하고 자연의 형상을 공간에 투영해 전개했다.

이번 전시에서 환기미술관의 본관은 하나의 세계가 된다. 1층은 포용하는 대지이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뿌리내린 모든 생명의 이야기- 우리 삶의 모습을 김환기의 시기별 인물/풍경 드로잉과 말로未路의 점화를 통해 마주할 수 있다. 2층은 빛을 향해 뻗어가는 잎이자 즐기이고 숲이며 나무이다. 무심하고도 영원한 것들의 풍경, 생동하는 ‘수화樹話의 세계’ 안에서 그가 채집한 자연의 언어로 깊은 교감의 대화를 모두와 나눠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서, 푸른 낮과 밤의 시간, 고요한 공기와 소리가 감도는 영원의 하늘, 3층에 다다르면 우리는 드디어 “김환기 예술세계의 지향점, 철학과 미학을 넘어선 하늘과 바다 산과 바위처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이른바 무위자연의 이상적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통해 타인과 나,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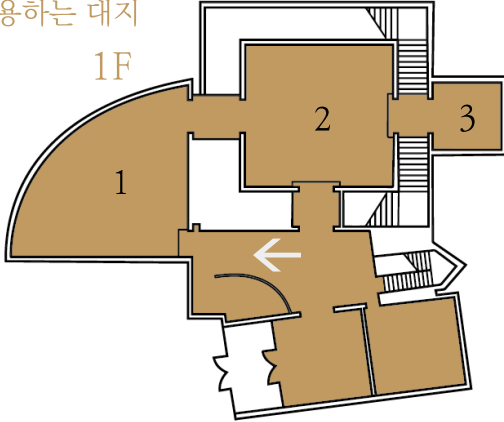
환기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환기의 작품 중 150여 점을 주제에 맞게 선별하여 풀어낸 이번 전시는 그간 비교적 조명받지 못했던 작품들- 특히 〈플랜츠 Plants〉(1967)와 같은 〈상징도형 연작〉을 전시의 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언어로서의 용도와 의미를 담아 다시금 소개한다. 이는 김환기의 작품세계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소비되거나 수장되지 않도록 또 다른 시선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여 끊임없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금의 관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이다. 또한 '영원' 시리즈를 포함, 디지털 이미지 및 영상으로 재현한 미소장작 39점을 더해 김환기 작품세계의 폭을 넓히고, 감각의 전이를 통한 보다 풍부한 전시 감상의 경험을 도모했다.

《예술의 향》은 김환기 예술세계로의 여정을 통해 ‘삶’에 대한 이해와 질문을 던지는 전시이다. 그 여정 속, 작가 자신과 자연, 온 누리와 나누었던 교감과 성찰의 흔적들은 당신 삶의 길목에서 불현듯 마주한 ‘어떤 것, 어떤 순간’들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 향기로운 발견과 만남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 삶의 체취가 더해져 더욱 깊어진 예술의 향취를 모두가 흠뻑 만끽하기를 희망한다. “서로 어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고, 가시 울타리도 걷어치우고 살 수 있을까” 말하던 다정한 그의 바람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의 가시 울타리를 걷어내어 우리 삶과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1.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김환기, 자연추상』, 2019

포용하는 대지

1F



### Part 1.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Where, in What Form, Shall We Meet Again

: 우리 삶의 이야기

#### 1. 환영의 인사

- \* 1950년대 드로잉
- \* 〈하트 도상〉 종이에 유채 연작
- \* 〈자연 모티프(하트 도상)〉 신문에 유채 作

#### 2. 생의 영원과 찰나

-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연작〉
- \* 〈듀엣 22-IV-74 #331〉
- \* 〈7-VII-74〉 \* 김환기의 마지막 작품이며, 그의 일기에 기록된 #338 작업으로 추정하고 있다.
- \* 1950년대 부산(피난)/파리 시대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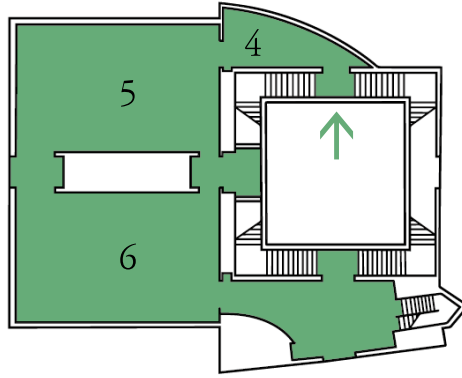
#### 3. 창조의 빛

- \* 〈14-III-72 #223〉

"이 땅에 태어나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다음을 기약하는, 끊임 없는 생명의 창조력, 함께하는 우리 삶의 모습"

생동하는 숲

2F



### Part 2.

영원한 것들 Immortal Natures

: 수화의 세계

#### 4. 김환기 다시 보기

- \* 사진 자료와 기록, 글을 통해 살펴보는 김환기 일대기

#### 5. 수화樹話, 자연의 노래

- \* 〈자화상〉 드로잉을 시작으로 초중기 김환기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주요 작품과 글귀들
- \* 〈종달새 노래할 때〉(1935) 디지털 재현작
  - 원작 사이즈 : 178 x 127cm
  - 김환기가 작가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세상에 인정받게 된 데뷔작. 현재는 그 소재所在가 불분명한 작품으로, 당시의 전시 기념엽서 이미지를 발굴하여 디지털 화면으로 재현해 소개한다.
- \* 〈상징도형〉 연작과 그 전개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작품들
  - 소통과 교감의 의미를 담아 이번 전시를 상징하는 '언어'로서 소개.

#### 6. 영원한 것들의 풍경

- \* 〈섬의 달밤〉, 〈파티나〉, 〈산월〉 유화 작품군
- \* 1950~60년대 〈산월〉 드로잉 군
  - 추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연의 형상이 담긴 작품들
- \* 1930~60년대 초(1963년 뉴욕 이주 이전) 김환기 대표 작품(미소장작) 재현 영상
  - 〈론도(1938)〉(등록문화재), 〈여인들과 향아리(1950년대)〉, 〈영원한 것들(1956-57)〉과 같은 김환기 대표 작품들을 실제 사이즈의 이미지로 재현한 영상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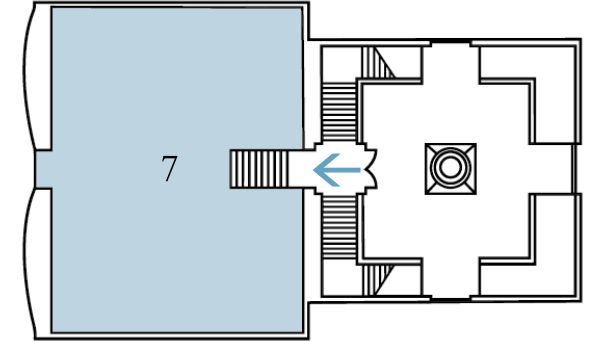


청각 가이드 \*

〈영원한 노래〉 by 음악감독 조용욱

영원의 하늘

3F



### Part 3.

무위자연 Letting Nature be

: \_\_\_\_\_ 삶, 성찰과 사유

#### 7. 푸른 낮과 밤, 소리의 시간

- \* 〈에어 앤 사운드 I, II〉
- \* 〈세레니티 VIII-65〉 외 〈사방구도〉 작품군
- \* 〈고요의 소리 16-X-73 #323〉 외 전면점화 작품군
  - 하늘과 바다, 산과 바위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자연의 경이로움

#### 후각 가이드 \*

- ↳ 〈작품의 향〉 by 시민 참여자분들
  - \* 지난 3월, 김환기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낸 '향'입니다.
  - \* 협력 : 더 퍼퓸코리아



#### 청각 가이드 \*

〈작품의 소리〉 by 음악감독 조용욱

~  
계속해서 [달관-수향산방]에서 예술가 김환기의 뉴욕에서의 삶과 마지막을 다룬 전시, 뮤지엄 가이드 II 《예술가의 방 : 김환기의 뉴욕 스튜디오》가 이어집니다.

Museum Guide

하나를 향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뮤지엄 가이드

© Whanki Museum Curatorial Department

본 전시 안내물은 버려지는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종이로 인쇄 되었습니다.